

G-PASS기업 94개 사 지정...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나선다

- 2026년 2분기 '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'(G-PASS) 지정서 수여식 개최
- G-PASS 지정기업은 해외 마케팅, 바이어 매칭 등 해외 진출 다방면 지원혜택... 하반기엔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위한 지원사업 추진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'2026년 2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이하 G-PASS) 지정서 수여식'을 개최했다.

G-PASS 지정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조달청은 2013년부터 G-PASS 지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오고 있다.

2분기 G-PASS로 지정된 기업은 총 94개 사로, 신규지정 36개 사와 재지정 58개 사가 포함되었다. 이번 분기 신규지정 기업의 지정 심사 통과율은 약 50%로 나타났다.

이번 G-PASS 지정 기업 중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역대 최다인 23개 사로, 혁신제품 지정에서 G-PASS까지 조달 지원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 한편, '지정 패스트트랙'으로 지정된 기업은 6개사로 나타났다.

*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이 충분한 기업은 1차 지정심사 면제

신규지정 기업에는 혁신제품 지정 포터블 X-Ray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오툼, AI 기반 의료지원 시스템으로 주요국 의료기기 인·허가를 획득한 (주)에이아이트릭스, 항온항습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출액이 천만 불에 달하는 주식회사 동인씨모 등 역량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다.

G-PASS 지정 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특히 G-PASS 신규지정 시, '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'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역량강화 교육, 상시 바이어 매칭·상담, '수출동행파트너' 배정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.

올해 하반기에 조달청은 UN 시장개척단, 국제기구 특화 전시회 참가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최근 이란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새로운 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”이라며, “기술력과 품질 등 기본 역량이 탄탄한 조달기업들이 내수 조달시장에 머무르지 않고,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혜경 (042-724-7554)
		담당자	사무관	고성주 (042-724-6492)

